

Better People Better World

# 좋은사람 좋은세상

## ‘직장인의 천국’ 꿈꾸는 CEO



머릿글 한국청소년경제교육문화원 원장 전미옥

5·6월프로그램

Issue&Seminar

\_봄온아카데미 대표 성연미

\_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국

CoverStory 한미파스스(주) 회장 김종훈

리더십이야기

회원탐방 Location portrait 사진가 오경근

지자체포커스 충북 제천시장 엄태영

2009 제주섬머포럼

명사초청특강 前 기획예산처 장관 김병일

발행인편지

윤병철칼럼

표지인물 김종훈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통권 제93호 [비매품] 등록번호 : 서울 마 03200 발행일 : 2009년 5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편집: 정용달 T.070-7500-9500(대) F.2203-1974 디자인 페가수스(www.pegasus.or.kr)  
주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www.khdi.or.kr (주)광진문화

2009 5-6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오늘도 우리강산은 푸르게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토에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활동, 아이들의 꿈을 푸르게 자라나게 해 주는 학교숲 만들기, 북한 및 동북아 지역 숲 복원 활동,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미래를 위한 신혼부부 나무심기까지 지난 26년 동안 3600만여 그루의 나무가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바꾸었습니다.

숲이 주는 고마운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건강한 숲을 만들고 가꾸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숲이 우리를 푸르게 합니다

#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라

전미옥 한국청소년경제교육문화원 원장

**최** 근 잘 알고 지내던 기업의 최고경영자 몇 분이 경영일선을 떠나 고문이나 부회장 등으로 물러났다. 해마다 인사이동은 있고 그런 일이야 흔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경영현장에서나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냥 손을 놓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은 직함으로 물러난 이런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 만나면 갑자기 빠르게 세월을 지내오신 것 같이 늙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이 단순한 경제수명 이상의 가치를 가지면서 인간 본연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한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경제수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는 20대부터 시작해서 50년을 일하는 경제수명 2050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되도록 오래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우선 효율적이면서도 위기에도 단단하게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알아야 한다. 경영자의 비전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좋은 경영자의 생각도 조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다면 조직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1993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고객의 욕구를 읽지 못하고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고사 직전의 IBM에 새롭게 영입된 최고경영자 루저스너는, IBM이 고객의 불만을 알아차리고 고객을 빠르게 만족시키도록 하드웨어 중심의 '컴퓨터 회사'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회사'로 변신시키면서 기업을 살렸다. 그는 "책상머리에서는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현장 지향적이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면서 IBM의 미래를 공유했다.

비전의 공유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탁월한 조직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상사와 부하, 동료와 동료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고 정확하며 활발하다. 뛰어난 리더는 결코 책상에 앉아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 뛰어 들어가 팀원들의 살아 있는 소리를 항상 경청한다. 특히 자기 말만 하기 쉬운 리더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남의 얘기를 정성껏 들어주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조언을 구하는 모 기업 경영자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까닭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냥 자기는 자신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듣기'에 가장 약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가 그 나쁜 단점을 버렸으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영자나 관리자 등은 더 이상 권위적인 기업문화가 만들어내는 일방적 소통만으로는 조직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생산성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젊은 부하직원과 눈높이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풍부한 대화도 가능해야 하고 그들의 세계나 기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다.

품위 없게 애들 노는 문화를 알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이미 실력이라고 말한다. 직원들 앞에서 각테일쇼도 마다하지 않고, 하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공서열 직급 다 무시하고 재미있는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치하기도 하고, 가요를 개사해서 사원응원가를 만드는 경영자도 있다. 경영자의 직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와 눈높이 맞추기는 경영자와 직원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애사심을 높이는데, 그 가운데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해 남에게 희생과 봉사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꿈의 공유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경영자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우리의 꿈'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도와야 한다.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임직원의 입장에서 비전대로 움직이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는 모습을 손에 잡힐 듯 그려서 보여줄 수 있어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조직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추상적인 한두 마디 경영구호로 뚫리지 않는다. 경영자가 진심을 담아 임직원과 진정으로 대화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말과 실천을 통해 임직원에게 깊숙이 통해 들어갈 때 회사의 수명은 물론 경영자의 경제수명, 직원들의 경제수명도 아울러 한꺼번에 늘려갈 수 있게 된다.

경영층부터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힘을 빼고, 지금보다는 좀 더 유머를 찾으며, 따뜻하게 직원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직원들은 어쩌면 조금 더 받는 봉급보다 더 감동할지 모른다. 지금은 마음을 더 어루만져줘야 할 시절이기 때문이다. **◆◆◆**



전미옥 원장

자기계발 교육 전문업체 CMI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한국청소년경제교육문화원 원장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사)한국사보험회 부회장,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위원, 한국경제신문 HiCEO 기획위원 및 CEO커뮤니케이션 주임강사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7살 여자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위대한 리더처럼 말하라', '팀장 브랜드', '성공하는 여성의 자기경영노트' 등의 저서가 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미래시리즈 6〉

### 당신의 미래,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제1595회 5월 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미래사회가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방향이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한 것이 미래다. 미래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다가오지 않겠지만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원하는 방향에 가까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정부차원에서 미래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본원은 2008년 (사)유엔미래포럼과 MOU를 체결하고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을 초빙해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우리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에 방한한 미카 알토넨 헬싱키대 교수는 유엔미래포럼 핀란드지부 대표로서 미래의 전략적 지성을 연구하는 미래연구소 StraX의 대표이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미래예측방법을 통해 세계금융위기의 회복시점과 유럽이나 핀란드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학적으로 미래의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등에 관한 강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미래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헬싱키 공과대 미카 알토넨 교수를 초빙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의 중요한 메가트렌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미래예측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내가 웃어야 가정이 산다

제1596회 5월 1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은 극심한 가정붕괴로 가족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족치료를 시민치료운동으로 승화시켜 가정회복에 기여한 바 있다. 오클라호마주와 버지니아주는 이혼 전에 판사가 지정해주는 기관에서 결혼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전문상담가를 찾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크다.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상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오제는 교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내면의 아픔을 돌보는 사람이다. 2000년 한국가족상담센터를 설립, 아시아인 최초로 IMAGO 부부관계치료전문가과정용 수료했으며, 미국 워싱턴DC와 LA 등지에서 IMAGO 부부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전문가로서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집단상담, 내면아이 치료그룹, 이혼위기 상담, 엔카운터 그룹(Encounter Group)을 인도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오제는 교수를 모시고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미카 알토넨(Mika Aaltonen)**

헬싱키대 공과대학 교수

Turku대학 경제학 박사 | 비엔나 케노스 서클펠로우 | 코펜하겐 타임어드벤처(Time Adventure) 위원 | 저널 Emergence 편집장 | 런던 예술 로얄 소사이어티 회원 | 파리 유럽지역 미래대학 회원 | (사)유엔미래포럼 핀란드 대표 | 세계미래사회 연사

〈저서〉 제3의 눈(The Third Lens), 논문 순환되는 우연성(Circular Causality)

〈상훈〉 2008 유명학술지 에머랄드(Emerald) 선정 우수논문상 수상



**오제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회장

캐나다 퀸즈대 상담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가족치료 및 상담학 석사 | 캐나다 토론토대 상담학 박사 | 가족상담단체전국연합회 공동대표 | 숭실대 상담심리전공 교수 | 미국심리치료협회(APA) 임상감독(Diplomate) | 로저스상담학회 총무이사 | 한국가족상담센터 공동대표 | 한국상담학회 이사, 국제교류위원장 | 국제공인 이마고(IMAGO) 부부치료 전문가

〈저서〉 결혼과 가족치료(공),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역), 칼 로저스의 존재의 방식(A Way of Being) : '사람-중심' 상담(역)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을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졸업 |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MBA 수료 | 삼성전자 컬러TV 품질평가 그룹장, 영상사업부 인사부장, 멕시코 생산법인 부장, 스페인 생산법인 공장장, 헝가리 생산법인 공장장 및 법인장 | 한국막(膜)학회 부회장 | 웅진쿠첸 대표이사

〈상훈〉 포브스코리아 경영품질대상, 2008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 신시장을 창조하는 제품과 마케팅의 융합

제1597회 5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즉 신시장을 개척하자는 블루오션 전략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매력적인 경영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영전략의 패러다임은 또 다른 노력과 지속적인 전략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마케팅 융합은 제품뿐 아니라 고객에게 차별적 인식을 가져다주며, 디지털시장의 성장시대를 맞이해 IT업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24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웅진코웨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준기 사장은 삼성전자 시절 공학과 디자인의 접목을 연구해 세계최초로 TV와 VCR 결합기를 만든 주인공이다. 지금도 혁신적인 기술과 감성적인 디자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디노베이션(디자인과 이노베이션의 합성어)경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는 제품 혁신, 디자인 혁신, 해외비즈니스 혁신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또한 홍 사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한 투자도 망설이지 않는 강력한 경영전략을 펼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공로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웅진코웨이의 홍준기 사장을 초빙하여 제품과 마케팅의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조하는 경영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닌텐도와 다윈이 만나는 생각의 진화론

제1598회 5월 2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스포츠용품 업체 부동의 세계 1위인 나이키는 성장률 둔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 즉각 경영혁신에 돌입했다. 이때 나이키는 닌텐도를 새로운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나이키의 주 타깃이 청소년들인데, 만약 이들이 닌텐도 게임에 정신이 팔려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집밖으로 나가 운동을 즐기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닌텐도는 2004년 이후 매출액은 3.2배, 영업이익은 4.4배로 늘어나는 등 거침없는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8년 매출액이 27조원을 넘었다. 닌텐도는 이제 게임을 넘어 문화가 되었다. 닌텐도의 타깃은 '5세부터 95세까지, 게임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다. 블루오션 점령을 넘어 게임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도해나가고 있고, 또다시 진화할 것이다.

다윈 탄생 200주년인 올해 김영한 다윈니즘연구소장은 닌텐도의 성공비결을 환경의 변화, 적응, 경쟁, 생존,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업'에 충실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생 기업의 성장비결을 탐구해온 김영한 대표를 초빙하여 최근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이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닌텐도의 비밀을 다윈의 진화론에 접목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영한 **다윈니즘연구소** 대표

연세대 산업대학원 전자계산학 |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졸업 |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 | 마케팅(MBA) (주) 대표 |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 이사 | 한국휴렛팩커드(주) 마케팅실장

〈저서〉 감성트렌드, 창조리더십 2.0,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하라, 민들레영토 희망스토리, 스타벅스 감성마케팅, 총각네 야채가게, 스토리텔링 세일즈, 스토리 로 승부하라, 닌텐도 이야기 외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 6월

## 내몸을 바꿔 질병을 완치한다

제1599회 6월 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비만치료 전도사로 유명한 유태우 박사는 과자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각 제과업체에 제안했다.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곳이 오리온이다. 제과업계에서 웰빙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오리온 'Dr. You', '유박사' 과자와 '닥터유 프로젝트'는 모두 유태우 박사의 작품이다. 그가 '건강한 과자'를 주창한 것은 '건강한 삶'을 강조해왔던 그의 지론에서 비롯됐다.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약과 수술에 의지하려는 게 많은 환자들의 자세다. 유태우 박사는 당장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의 삶 자체를 바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는 웬만한 성인병과 정신질환은 다이어트, 절주, 금연, 휴식, 체형가꾸기, 자신 알기, 관계정립훈련 등 3개월의 '내몸 훈련'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누구든 질병으로부터 완치에 이르게 되며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평생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유태우의 신건강인센터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유태우 박사를 초빙하여 한국인의 기질과 건강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1600회 기념특강>

### 국제정치의 과제와 대한민국 미래비전

제1600회 6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비롯해서 시시각각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민족은 항상 어려운 시대를 현명하게 이겨나가는 위기극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고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뉴딜정책, 신성장동력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과 국민 안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기업들도 더욱 동참해서 온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을 보여줄 때이다.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주체들이 이해를 통한 소통의 대화를 할 때 더욱 그 해답을 빨리 얻게 될 것이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1975년부터 매주 쉬지 않고 달려온 리더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으로서 특별히 1600회를 맞는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개최로 한승수 총리를 초빙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리더들이 지혜를 모아 복잡한 국제정치 환경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국가적인 미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유태우 유태우의 신건강인센터 원장

美 Bowman Gray의대 의학 석사 | 서울대 의학 박사 |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과장 |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건강증진센터/원격진료센터 책임교수, 건강증진센터 내몽개혁 6개월 책임교수, 비만/스트레스/노화방지클리닉 담당교수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기, 건강서비스 효능평가위원회 위원장 | 신건강인연구소 소장

<상훈> 대통령표창

<저서>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유태우다이어트, 비타민소크, 유태우교수의 내몽개혁 6개월 프로젝트 외



한승수 국무총리(예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英 요오크대 경제학 박사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제13, 15, 16대 국회의원 | 駐미국 대사 |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 외교교통상부 장관 |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특사,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회의 의장

<상훈> 대만 대수경성훈장, 벨기에 대십자왕관훈장, 대영제국 명예기사작위, 제7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외

<저서> 경제정책론, 신경제정책론 외



윤용로 기업은행 회장

한국외대 영어과 졸업 | 美 미네소타대 행정학 석사 |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소비세제과장 | 재정경제부 장관 실비서관, 외화자금과장, 은행제도과장 |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 감독정책2국장, 부위원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상훈> 근정포상, 홍조근정훈장



이영탁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 美 윌리엄스대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 제7회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교육부 차관 | 제16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 경희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 KTB network 회장 |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부이사장 | 제17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상훈> 녹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저서>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혁명, 소백의 정기가 낙동을 감싸안고, 미래진단법 :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라 외

##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중소기업의 미래

제1601회 6월 1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은 금융기관 전반의 신용경색,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으로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실적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물경제의 부활신호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국내 상황 역시 최근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인한 생산감소가 고용악화로 이어지는 등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감소에 자금난까지 겪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발전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이런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이 중기대출을 늘릴 때 취급을 자제하고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몸을 사릴 때 적극적인 대출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 금융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최강의 은행이 되겠다는 기업은행의 윤용로 행장을 초빙하여 금융위기 상황을 진단해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미래와 세상

제1602회 6월 2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미래는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 대비하고 선점하고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미래인가? 미래 전문가들은 미래의 변화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CIA, FBI 등 16개 정보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정보회의(NIC)의 '2025년 세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부와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앞으로 경제의 글로벌화 등으로 '국민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 시스템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국가권력은 급속하게 줄어드는 대신에 기업이나 개인, NGO단체들의 권력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글로벌정부가 탄생한다고까지 예견하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며, 특히 한국의 학생들은 장차 필요치 않을 지식,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급격한 미래 변화속도에 편승을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들이 미래예측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권력 이동, 우리나라 인구와 출생률 감소, 고령화 가속 등과 같은 요인들이 세계 경제 변화와 어우러져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내다보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선점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이영탁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58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3월 2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 CEO를 위한 미디어 스피치

성연미 봄은아카데미 대표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방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격려도 하는 사회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선배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아나운서는 시청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장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하는 상대로서 시청자를 대하게 했다. 사용하는 언어는 늘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항상 긍정적

이고 바르고 고와야 한다고 했다. 그런 '아나운서 정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미디어 스피치를 생활화하라

왜 지금이 미디어 스피치의 시대인가? 지금 당신의 말이 생중계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말실수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은 본인이 말실수했다고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은연중에 했던 말이라고 해명하는 분도 있다. 미디어의 특성상 표면 그

대로 보도된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하지만, 해명을 들어주고 변명을 하다보면 더 난처한 입장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석에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스피치와 다르게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자리에서 했던 말이든 모든 미디어에 전파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 작은 강연석상에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할 수도 있고, 기자와 대담을 한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여러분들처럼 공인으로 활동하는 CEO들은 개인적인 스피치와 공적인 스피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각과 말들을 공식석상으로 생중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언어구사를 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스피치를 생활화해야 한다.

링컨 대통령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온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나의 말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했다. 타고난 연설가인 오바마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때는 프롬프트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만큼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말을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아나운서 자질

아나운서들의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고 참고하면 좋을까. 아나운서들은 전문방송진행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전파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희망과 용기의 메신저가 되기도 한다.

뉴미디어가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현재 1,000여 개가 넘는 방송사가 활동하고 있다. 매체는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 소규모화 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방송사는 다양해지고, 종류는 많아지고 하다 보니 다재다능한 방송진행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방송에 필요한 자질은 방송진행자들만의 자질이 아니라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진행자는 첫째, 한국어에 대한 올바른 표현 방법,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호감 가는 이미지는 내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질 때 만들 수 있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서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시사상황을 알 수 있는 교양,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넷째, 시청자에 대한 애정

을 가져야 한다. 마이크와 카메라는 우리에게는 애인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대한다. 다섯째, 긍정적인 언어사용을 해야 한다.

아나운서가 사용하는 언어기술이 있다. 첫째, 인성언어이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다. 둘째, 음성연출이다. 말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음성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시각언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첫 대면에서 3초 안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한다. 첫인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 미디어 언어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모두가 알게 된다. 방송의 시작부터 거짓 없는 언어로, 겸손한 자세로 방송을 해야 그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신뢰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와 공감을 얻게 된다.

어느 정치인이 "노인은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물론 그의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꿨다면 어떨까.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에 열정과 에너지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 이제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필요할 때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켜가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말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야구선수 이치로가 "한국야구가 일본을 따라오려면 30년이 걸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놀라운 실력이 두렵다. 발전하는 한국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인정과 함께 공감도 얻었을 것이다.

미디어 언어라는 것은 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개인적인 대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문화까지도 형성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본인의 철학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미디어 언어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나운서 선배들을 봐도, 50~60대가 된 분들이 아직도 시를 읽으며 문학소년 소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집을 읽고, 언어와 마음가짐을 점검한다.

방송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액면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석상에서 해야 되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솔직하고 따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 아나운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나운서의 음성은 타고나는 것인지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다. 결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까. 먼저, 소리를 전달하는 발성연습이 필요하다. 음성에 정보를 실어서 던져주는 것이다. 정보를 듣는 상대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그 거리까지만 소리를 던진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상대방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속삭이듯 말을 한다. 거리에 맞게 음성을 던져주는 발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발성의 강약조절을 하면서 말을 한다.

두 번째는 발음이다. 미디어에서 발음의 정확도의 기준은 한 번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중모음, 원순모음, 받침발음, 르발음을 주의 깊게 해야 한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입을 최대한 많이 벌려서 발음하면 된다.

세 번째는 포즈이다. 말을 하면서 반드시 쉬어가면서 의미에 맞게 띄어서 말을 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좋은 예이다. 띄어읽기는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강세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어디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말은 달라진다. 본인이 생각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힘을 줘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속도이다. 내용과 상대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말의 속도는 1분에 385음절, 90단어 정도인데, 조금 천천히 할 경우와 빠르게 할 경우를 가늠한다. 어려운 내용은 천천히 쉬운 내용은 빨리, 같은 내용 안에서도 중요한 단어인 주어, 명사, 목적어는 천천히 하고 형용사, 동사, 서술어는 좀 더 빨리 해서 말의 강약 완급을 만들기도 한다.

여섯 번째, 내용에 감정이입을 하는 어조를 사용한다.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말에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음의 고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내용은 밝고 경쾌하고 높은 음으로 하고, 심각한 내용은 보통 낮게 표현한다. 장단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말을 품위있게 하고 싶다면 천천히 하는 것이 좋으며, 장음을 다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을 활용해서 음성표현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보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웃는 얼굴과 밝은 표정을 보여주는데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웃는 모습을 연습하는 방법은 '개구리 뒷다리로 입모양을 연습하면 예쁜 입모양이 나온다. 눈 맞춤도 중요한데, 방송을 하면서 카메라의 어디를 봐야 하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렌즈의 밑 부분을 보면 좋다. 리포터와 인터뷰할 때는 리포터의 얼굴 전체를 바라보고 시선을 조금 아래로 하면 좋다.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꼭 마이크가 내 옆에 있다는 의식을 해야 한다. 마이크 주변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마이크는 꽃을 잡듯이 손모양이 예쁘게 보이게 하면 된다. 마이크에서 2~3cm 정도 떨어져서, 턱밑으로 내려놔야 청중들이 입모양을 보면서 내용을 알아듣는다. 손짓에도 의미가 있다. 당당한 자세가 중요하다. 의상도 중요하다. 시각언어에서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스피치를 연애하듯이 해보고,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연애하듯이 말을 건네 보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보면 직장, 가정, 사회에서 행복한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나운서들이 시청자들과 연애하듯이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과 연애하는 스피치로 성공하는 리더들이 되시길 바란다. **KNN**





제159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4월 1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 녹

색성장이란 아주 간단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할 때 중요시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로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름에 의지하고 있다. 기름을 사용한 경제성장 방식은 유가의 급등락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상이 불가피함을 이미 1~3차 오일쇼크를 통해 체감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장래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견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주 개발을 통해 해외에서 광구를 개발하여 확보해 놓은 에너지가 16~17%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4% 전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심각하다. 화석연료 의존방식으로는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현재 지구온난화현상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경제도 어렵고 환경도 어려운 지금의 시기가 녹색성장 추진의 배경이다. 녹색성장은 현행 에너지 방식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다. 당장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적게 쓰는 방안으로 효율화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적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녹색성장 정책의 근간이다.

## 경제와 환경이 함께 가는 것이 생태근대화

작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은 G8 정상회담에서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보다 앞장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산업근대화의 논리이다. 그러나 경제도 좋아지면서 환경도 좋아지는 상황이 산업근대화 이후의 모습이다. 이것을 생태근대화라고 한다. 대체에너지, 화석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면 경제와 환경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녹색



www.khdi.or.kr

성장 정책이다. 이전의 산업근대화에서 경제는 환경을 망가뜨렸지만 생태근대화는 지금의 에너지위기에서 경제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생태근대화 개념이 세상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근대화에서 가져온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만 이야기한다.

일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1년부터 규모를 줄이고 녹색성장을 내세우는 것은 지금의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리있는 말이지만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문적 배경에 있어서 경제, 환경, 사회와의 동시적 조화는 쫓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말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반해서 녹색성장은 에너지 문제에 손을 대면 경제도 좋아질 수 있고 대기오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원인을 말하고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는 실천성이 강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에너지위기 대책이 초우위 목표 돼야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가옴에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떤 문제든지 단기적으로 비판하고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녹색성장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단기 비판하고 장기 비판하는 것은 염세주의자이다. 단기 낙관하고 장기 낙관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단기 비판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의 봉착은 앞으로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이 많다고 해서 단기 비판하고 주저앉는다면 어떤 일도 이뤄지지 않는다. 위험을 함축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전 세계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뒤에 대처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극 평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점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큰 과제를 돌파하는 자세였다.

녹색성장 정책을 한국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어려움이다.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기후상황과 에너지 대책은 초우위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과제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갑론을박, 시시비비가 존재한다. 모두가 입장을 달리하며 싸우기도 하고 이념적으로 갈라서기도 한다. 하지만 갑론을박하더라도 밖에서 '불이야' 하고 외치면 반드시 그 불은 사람들이 함께 끄기 마련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초우위 목표라고 한다. 오늘의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초우위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12년까지 4%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문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너지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 등 에너지 관리를 잘하면 에너지 소모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잘하면 에너지 소비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사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사무실 조명등이 최근 LED등으로 바뀌고 있다. LED등은 똑같은 밝기를 유지하면서도 백열등보다 10분의 1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60%에서 90%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형광등을 LED등으로 바꾸면 8~10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LED등 보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주나 브라질에서는 백열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백열등은 골동품이 될 것이며,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 전기생산량에서 조명이 쓰이는 전기가 20%라고 한다. 물론 그 20%는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바뀌어 많은 절약을 한 것이다. 형광등은 같은 밝기의 백열등에 비해 3분의 1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형광등 안에는 수은이 들어있어 폐기 처리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지능형 전력망'을 긴급한 과제로 추진

하고 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전기가 최대로 소비된다. 여유 전력을 10%로 유지해야 하는데 5%에 그친다. 이러한 비용은 경영상의 부담이 된다.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맞물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유 전력을 확보해 이전의 경영 손실을 막겠다는 것이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말하기 전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녹색성장 관련 사업 진행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제는 2차산업의 녹색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서비스산업의 녹색화는 화상전화회의시스템 같은 것들이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한다면 교통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고, 교

독일은 햇빛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큐셀이란 회사가 앞장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열심히 하고 있다. 명량해전의 현장이었던 진도에서 90,000kw의 전기를 개발 생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감하지 못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우리사회 깊숙이 R&D가 이루어지고 시도되고 있는 것에 감탄하곤 한다.

### 환경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

순천만 습지에 가면 갈대도 있고 철새들이 많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광경은 아니다. 하지만 30대 전후의 젊은 도시인들이 찾아가서 즐기는 것은 자연의 미묘한 질서를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관광생태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새로운 것, 해외로

나가는 것을 통해 큰 것을 보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자연의 기본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연에 대한 관심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다. 사람이 가져야 할 제일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며 그 연장이 라고 볼 수 있다.

나이 들어서 해외여행 간다는 것은 쇼핑밖에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젊을 때의 해외여행은 인생의 보약이다. 순천만 습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보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2002년만 해도 10만명 정도

였는데, 작년에는 260만명이 찾았다고 한다. 지역의 부가가치는 1,000억원에 이르며, 주변 음식점은 주말의 경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곳을 찾는 260만명의 관광객들이 안겨주는 경제적 이득은 인근 광양만이 순천시에 안겨주는 경제적 이득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이 사실은 바로 환경이 값이 되고 경제가 올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근대화는 같이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이 경제를 끌고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을 녹색성장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재민**



통수요를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암 진단의 경우 여러 각도에 따라 진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이 돈이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발달하면 국립암센터의 진단팀과 미국의 암센터 진단팀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효과적인 의료활동을 펼칠과 동시에 2조원의 외화유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서비스산업의 녹색화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까지 4%가 목표이다. EU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EU의 경우는 12%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은 태양광 발전 목표를 14%로 잡고 있다.



사진\_오경근 원장

## 직장인의 천국 꿈꾸는 CEO 2015년 세계 10대 CM 전문회사로 도약

김종훈 한미파슨스(주) 회장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2015년까지 세계 10대 CM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사업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시장으로 넓혀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파슨스의 김종훈 회장은 최근 해외 출장이 잦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해외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 회장이 이끄는 한미파슨스는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국내 최대 CM업체다. 13년의 짧은 역사지만 CM의 본고장인 미국시장에 진출 할만큼 해외에서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미파슨스가 불경기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이 회사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 때문이다. 회사 창립 때부터 '구성원 중심의 회사', '직장인의 천국'을 만들어보겠다는 김

회장의 신념이 GWP운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 회장은 차기CEO선정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인간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으로 세계적인 CM업계 반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김종훈 회장을 만나 CM시장의 전망과 함께 한미파슨스가 꿈꾸는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김종훈 회장

1949년 생으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70년대 한라건설, 삼성물산 등에 몸담으면서 중동 건설현장을 누볐다. 96년 미국 파슨스사와 합작으로 한미파슨스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1월 회장에 취임했다. 국토해양부 건설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한국CM협회 이사, 한국외국기업협회 부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 등 왕성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파슨스는 국내시장에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처음 도입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미파슨스는 1996년 세계적인 건설사업관리 (CM:Construction Management) 회사인 미국의 파슨스 (Parsons)사와 합작한 회사입니다. 사실상 국내에 CM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죠. 당시 서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한국이 전근대적인 건설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대 중동 현장에 근무하면서 선진 CM업체들을 보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 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파슨스가 유일하게 CM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시장에서는 상암 월드컵주경기장,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I-PARK, 국립과천과학관 등 6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30여 개국에 진출해서 지금은 해외시장에서도 한미파슨스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죠. 지난해 미국 건설 전문 잡지 ENR가 선정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CM업체 순위에서 우리 회사가 16위를 기록했는데, 미국을 포함할 경우에는 세계 40위 수준에 와있습니다.

**CM이라는 분야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데요. 어떤 사업 분야입니까.**

CM은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비즈니스 영역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분야로 자리잡았어요. 미국의 경우 대형업체를 위주로 한 통계를 보면 전체 건설물량의 40~50%가 CM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건설 발주를 하면서 설계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CM업체를 먼저 찾는 게 일반화되고 있죠.

CM의 기본적인 기능은 발주자의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서비스죠. 건설을 하다보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지만 건설산업에서는 상당부분 기술에 배경을 둔 의사결정을 해야 해요.

그러나 발주자는 그런 기능이 부족하고 상시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CM업체가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절약하

는 등 발주자의 건설 목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발주자의 건설본부 조직을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과정을 바라보고 설계업체,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등을 포함한 업체관리를 성공적으로 해서 발주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 건설산업의 개선 요소가 많은 나라일수록 CM이 더욱 필요합니다.

**국내 선두업체로서 우리나라 CM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국내 CM시장은 대형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건설시장에서의 비중은 10% 내외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앞으로 시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도 됩니다.

최근 CM분야를 블루오션으로 여기고 기존 설계회사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CM업체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영역을 유지하면서 CM을 하나의 사업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공급업체의 수준 문제입니다. CM은 단순 시공이나 설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니지먼트 개념이 들어가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능력과 함께 공급자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발주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능력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돼요.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CM분야에 도전하면서 공급자의 능력, 수준을 높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어요. 블루오션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뛰어드는데, 좋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막상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수행능력에서 문제가 발생해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점이 CM업계가 갖고 있는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이 주춤 가운데, 회장님은 해외진출이 우리 건설산업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사업들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등 중동시장의 거품이 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리비아, 사우디, 알제리 등은 비교적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사우디는 국제 유가 30달러 기준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정도로 경기침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알제리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4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많이 위축됐지만 정부 발주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공공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 중동 출장에서 현지 직원들과 함께

현재 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4조달러가 넘는데요. 이 중 시장점유율이 1%만 돼도 400억달러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 SOC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가 준비만 철저히 하고 전략적으로 승부한다면 바로 지금이 중동시장 뿐만 아니라 선진국 건설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파슨스는 해외 수주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물량도 줄었고,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다소간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국내시장만 가지고는 우리의 성장 속도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해외시장 개척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요.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한국인 중심이 아니라 현지인을 전면에 내세워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지원자 역할을 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인력의 글로벌전략을 채택한 거죠. 이와 함께 자원과 연계한 SOC개발사업 등 '패키지 딜' 형태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과 연계한 전략은 기본이고요.

한미파슨스는 이러한 전략의 성공으로 지난해 해외에서만 6000만불의 수주 실적을 거뒀고, 올해는 1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현재 리비아에서 제2도시 벵가지에 들어설 신도시 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CM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확정된 것만 2만여 세대에 8000만불 수준이죠. 알제리의 경우도 한국토지공사와 합작으로 4개 신도시를 조성하는 CM 사업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LA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월서후버 쇼핑몰' 신축공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CM의 본고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CM의 본고장인 미국에 진출하게 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진출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CM의 본고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1조 달러 규모의 미국시장에 진출했다는 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죠. 현재 미국이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이 향후 미국경기가 살아났을 때 미국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후발업체나 타 건설사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데도 모범적인 프로젝

트가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선진국시장인 미국으로부터 CM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술을 역수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유럽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해외사업을 대폭 확대해 현재 세계 40위권에서 2015년까지 10위권의 CM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산업선진화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얼마 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건설사업비 절감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가치창조 산업"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건설산업에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 5대 전략을 수립해 2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3대 목표 중 하나가 5년 이내에 건설시스템 혁신으로 사업비 30%를 절감하겠다는 건데요. 사업비 30% 절감에 대해 업계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사비 절감이 아니라 발주 프로세스나 생산과정의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겠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시스템과 관련한 관행과 각종 규제입니다. 위원회는 규제효과를 통해서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규제문제는 부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각종 규제를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큰 발주자가 제 역할을 하면 그 아래 발주자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업계 스스로 개선할 사항도 많겠지만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건설산업은 300개가 넘는 규제일변도의 법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변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 1월 사장에서 회장으로 직함을 바꿔 다셨습니다. 앞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후계자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차기CEO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후보자를 선정해 수 년간에 걸쳐 보직을 이동시키면서 능력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핵심 인력 20명을 선발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죠. 그 결과 후보를 압축하고 차기CEO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지난 1월 이순광 부사장을 최종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순광 사장은 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ng Officer)를 맡아 일상업무를 책임지고 저는 회장에 취임해 전략적 경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향후 세계 10대 CM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해외사업을 진두 지휘하는 글로벌경영에 역점을 둘 생각이예요.

한편 이순광 사장은 올 1년 동안 능력평가를 받은 후 정식 CEO로 취임해 최소 10년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치밀한 승계 절차를 거친 것은 회사 차원에서 룹팀의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CEO가 되면 10년 20년 지속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합니다.

이번 차기CEO 후보 선정 작업은 국내에서도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어요. 사실 기업승계는 그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인데, 우리 주변에는 후계자를 잘못 선정해 2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절차와 원칙을 지켜 능력있는 경영자를 선정하는 한미파슨스의 차기CEO선정 과정이 기업의 승계를 고민하는 오너경영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회사 창립과 함께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미파슨스의 사회공헌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을 하면서 기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가진 자의 의무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 구현에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실현으로 회사 창립 때부  
터 전 구성원이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공헌활동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자 의식이며, 철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창립 이래 한번도 빠지지 않고 30여 곳의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설관  
리자나 수용자들과의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은 전 직원들이 급여의 1%를 내고 회사에서 2%를 내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관여하고 있는 한 우리회사가 가장 모범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구상하던 사회복지재단 설립 작업을 준  
비하고 있는데요. 재단을 만들어 좀 더 조직화하고 체계적인 활  
동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회사 부설 재단 설립을 생각했는데, 구상을 바꿔서  
국내 최초로 기업들이 연합하여 복지재단을 만들고 같이 사회공  
헌활동을 하는 기업연합체 사회복지법인 계획을 만들었습니  
다. 물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100여개 기업을 유치해 300억  
원 규모의 복지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차  
근히 준비해 내년 3월에는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미파슨스는 인간중심의 조직문화가 강한 기업입니다. 특히 “직장인  
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GWP운동이 독특해 보이는데요.  
회사 창립 때부터 구상했던 것이 '구성원 중심의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성원 중심의 핵심은 인재를 중시하는  
경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을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  
서는 건설회사, 설계회사, 나아가 발주자를 리드해야 하기 때문  
에 인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필  
요하기 때문에 인재중심의 경영은 당연한 결과죠.

또한 단순히 우수한 인재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직장인의 천국'이  
라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GWP(Great Work Place) 운동'이죠.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운동'으로 구성원 존중과 인재존중의 조직문화운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간에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질'이  
우수한 기업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객인  
구성원이 만족해야 외부고객을 만족시키고 이에 따른 성과가 발  
휘돼 선순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회사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GWP운동을 시작한 이래  
작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를 계기로 GWP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회사 조직문화의  
DNA로 정착시킬 생각입니다.

**해외인턴사원 채용,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등 인재발굴 및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회사보다 높다고 자  
부합니다. 회사의 비전도 'Excellent People에 의한 Excellent  
Company를 구현한다'로 정했죠.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CM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영입과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합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교육시간을 점차 늘리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직원 1인당 연간 교육시간이 200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재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인턴 프로그램은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우리회사의 중동지역 현장에 1년간 직접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인턴사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보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현지의 문화까지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1년 후에는 우리가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인턴프로그램을 마친 인력은 100%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다 특화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성균관대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업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상을 만들어 실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환영받는 인재로 재교육시키겠다는 목표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4년간 매주 조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경이로운 업적을 일궈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장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오셨다는 사실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CEO 중심의 활동이 좀 더 강화되어야 파급효과도 커질 거라는 점입니다. 오랜 전통에 반해 다소 고착화된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려는 혁신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연구원 근본 취지와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재민**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장만기 회장과 김종훈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회원 & 연구원 소식

###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부원광학(주)	박준봉 회장	5월 1일
농협대학	이상영 경영고문	5월 1일
주식회사 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주)미진	정지미 이사	5월 2일
(주)호텔롯데	좌상봉 대표이사	5월 5일
삼익THK(주)	심갑보 부회장	5월 10일
(주)위즈네트	이윤봉 대표이사	5월 11일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 13일
삼이그룹(주)	김석희 회장	5월 13일
서울사이버대	김수지 총장	5월 14일
ESODO	김진희 대표	5월 15일
현대H&S	홍성원 대표이사 사장	5월 29일
신원헬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주)파로스 이앤아이	김서기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삼성회계법인	배원기 전무이사	6월 1일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	6월 1일
한국우드워드	이창한 이사	6월 1일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6월 5일
서울중앙클리닉	김광 행정원장	6월 2일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 5일
(주)대양파이프	곽창선 회장	6월 7일
(주)테크노랜드	서정환 사장	6월 13일
(주)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	6월 17일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 24일
대성MD(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주)소예	이상숙 회장	6월 27일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김영욱 이사장	6월 29일

### 소모임 소식

- **이중기업동우회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4월 27일 교대역 雪國에서 제261차 모임을 가지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목회(회장 방기봉 / 총무 한종덕)**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방기봉 (주)E&C정보기술 회장을 추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장찬기 (북)해동재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목회 4월 모임은 지난 27일 곽우철 (주)인피니티 대표를 모시고, "인류의 식의 발전단계와 미래"를 주제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다락회(회장 박세직 / 총무 이종원)**는 박세직 회장께서 재향군인회 32대 회장으로 재선임되면서 모임 일정을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 ▶ 일 시 : 2009년 6월 9일(화) 오후 6시
  - ▶ 장 소 : 별도 통지 예정
  - ▶ 연락처 : 총무 이종원(H.P. 010-5306-8587)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이재욱)**의 5월 모임은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을 초청하여,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특히 인간개발연구원 임직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원내 소모임 회원들에게 열린 자리로 마련하였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09년 5월 13일(수) 오후 6시
  -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용산)
  - ▶ 참석여부 : 정성숙 과장(Tel. 070-7500-9508)

- **인경회(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는 지난 4월 28일 한양CC에서 4월 정기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16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용국 회장이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 / 아주대 교수)**은 김종욱 전 우리투자증권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9일 모임을 갖고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박돈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YCF(회장 정경연 / 총무 김진욱)**

4월 모임에서는 특별 게스트로 미로 비전의 채희승 대표를 초청하여 가든 플레이스의 엔터테인먼트 전략에 관한 Short Speech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모임 일정은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 2009년 5월 9일(토) 오후 7시
- ▶ 장 소 : 공간퍼플 앞마당(파주 헤이리 마을 Tel. 031-956-8600)
- ▶ 문 의 : 정성숙 과장(Tel.070-7500-9508)

- **책쓰기를 위한 세이클럽(회장 김창승 / 총무 이계옥)**

4월 모임은 지난 13일 문학의 집·서울 산림문학관 2층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월 모임에서는 양병무 원장의 "칼럼읽기를 통한 글쓰기 실습" 강의를 있었으며, 회원들의 글을 품평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5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 시 : 2009년 5월 18일(월) 오후 6시 40분
- ▶ 장 소 : 문학의 집 · 서울 산림문화관 2층홀
- ▶ 문 의 : 정용달 팀장 (Tel. 070-7500-9500 내선 108)

**지자체 소식**

**• 전국 색깔별 교양강좌 잇따라...**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 충족을 목표로 내걸고 2007년 3월 시작한 '열린시민강좌'가 시민과 공무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매회 400~500명이 참석하는 '열린시민강좌'는 지난해 총 15회 강연에 8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고정 수강자가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진안군의 '마이학당'도 평균 200여명이 참석하는 인기강좌로 자리잡았다. 주민 이상분씨는 "평소 신문·방송에서만 보던 유명인사들을 직접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달랠 수 있어 좋다"며 "강의가 있는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마이학당은 한 해 평균 1만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렇듯 아카데미가 지역별로 자리잡으면서 강사로 참여했던 강사들이 지자체를 알리는 홍보 도우미로 나서는 등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다.



**• 참진주 아카데미에서 국민배우 엄앵란씨 강연**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23일 시민을 위한 무료 교양강좌인 '참진주 아카데미'에 영화배우 엄앵란씨를 초청해 "내 인생의 연출자는 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시청 강당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찬 청중들을 대상으로 엄앵란씨는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있는 인생 경험을 거침없이 쏟아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참진주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매월 정기적인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연구원 소식**

**• 회원친선행사 영화 '워낭소리' 단체관람**

본원은 소모임 다락회(회장 박세직 / 총무 이종원)가 주체가 되어 모든 이종기업동우회 및 회원들을 모시고 지난 3월 10일 단체 영화관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화는 인간과 동물의 상생과 나눔, 희생적인 삶을 다룬 영화 '워낭소리'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 금산 산벚꽃축제 걷기대회 개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8일(토), 본원과 한국수입업협회 산친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회원친선행사가 열렸습니다. 본원 회원 및 가족 등 40명이 충남 금산군 보곡산골에서 열린 '산꽃나라 산꽃여행 축제' 걷기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동 중 버스 안에서는 '달리는 공부방'이라는 타이틀로 회원들의 말씀과 함께 '나에게 봄은 000다'라는 주제로 각자 메시지는 전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금산군과 한국수입업협회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버건강 특별세미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

본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주관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실버건강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가와 신세이 일본 게고루라이프 대표이사 와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을 초청하여 한국경제신문사에서 5월 14일 개최됩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이번 특별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 2009년 5월 14일(목) 오후 2시~5시
- ▶ 장 소 :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신홀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 ▶ 주 관 : 인간개발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
- ▶ 후원기관 : 오마이뉴스, 노년시대신문, 대한노인회, 서울사이버대학교
- ▶ 대 상 : 노후 및 실버산업에 관심 있는 분과 병원 및 노인복지 담당자
- ▶ 참가비 : 무료(선착순 130명)
- ▶ 신청방법 : 신청서 기재 후 이메일(smile@khdi.or.kr) 또는 팩스(02-2203-1974)로 송부
- ▶ 문의처 : 인간개발연구원 김인선 (Tel. 070-7500-9500 내선 113)
- ▶ 세부 프로그램
  - 오후 2시 00분 ~ 2시 10분 개회사
  - 오후 2시 10분 ~ 2시 50분 Session I
    -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前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 주제 : 아름다운 노후 생애 설계와 건강관리
  - 오후 2시 50분 ~ 5시 00분 Session II
    - 오가와 신세이 일본 게고루라이프 대표이사
    - 주제 : 실맛 나는 노후를 위한 노년 건강관리와 치매예방 (일본, 중국 사례 중심으로)

제27회 인간개발연구원 제주섬머포럼

# CEO SUMMER FORUM

대표주제

## 생각의 진화로 미래비전을 디자인하라

일 정 : 2009년 7월 29일(수) ~ 7월 31일(금) 2박 3일

장 소 : 제주 롯데호텔

주 최 : 인간개발연구원

참가대상 : 기업/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300명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시대, 우리 기업에게도 고통이 따르고 어려운 스토리가 많지만,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항상 위기속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룬 역사의 증거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위기라는 터널은 어둡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이번 섬머포럼에서는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전략적 경영과 기회 포착의 시간으로 만들 대안들을 제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방법론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업과 각계의 리더들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길잡이가 되고, 하반기의 경영을 위한 창조적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시대의 리더들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올리는 회원사들과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위기의 터널을 뚫고 나갈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라며, 인간개발연구원은 항상 가족 같은 마음으로 경영자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정만기

원장 양병무

섬머포럼 사무국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층 T: (02)2203-3500 F: (02)2203-1974 www.khdi.or.kr



# Jeju Summer Forum Program

## 7/29(수) 제1일차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제성장 전략

- |   |  |
|---|--|
| 10:00 김포공항 - 제주공항- 롯데호텔 이동                              | 16:30 <b>[소셜디자인]</b> 시대의 희망을 심는 리더가 되자<br>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 13:00 참가자 등록 및 Check in                                 | 17:40 <b>[가족특강]</b> 위기돌파력이 강한 '가족 DNA'의 완성과 가족성공학<br>김미경 W.Insights 대표 |
| 15:00 <b>[개회사]</b>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18:40 <b>[환영 만찬]</b> 참가자 친선교류, 불꽃 축제<br>롯데호텔 야외가든 만찬장(우천시 실내)          |
| 15:10 <b>[오리엔테이션]</b> 행사 주요내용 안내 및 공지사항                 |  |
| 15:20 <b>[기조강연]</b> 성장형 경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전략<br>경제부처 장관 교섭 중 |  |

## 7/30(목) 제2일차 | 미래를 창조하는 경영의 지혜

- |  |   |
|--|---|
| 09:00 <b>[굿모닝여행]</b> 인생의 여백,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올레로 느끼자<br>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 16:50 <b>[경영특강3]</b>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비상을!<br>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
| 06:00 <b>[제주섬머포럼 친선골프대회]</b> 스카이힐CC                              | 18:00 <b>[경영특강4]</b> 기업이 정신으로 불황의 파고를 넘자<br>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
| 14:30 <b>[경영특강1]</b>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br>신재철 LG CNS 사장              | 19:00 단체사진 촬영, 친선만찬, 골프시상식                                |
| 15:40 <b>[경영특강2]</b> 미래와 대화하는 기업의 진화<br>손 욱 농심 회장                | 20:00 <b>[제주도의 푸른밤]</b> 가수 한영애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브루스            |

## 7/31(금) 제3일차 | 불황의 파도를 뛰어넘는 도전과 극기

- |   |  |
|---|--|
| 10:00 <b>[굿모닝건강]</b> 스트레스 제로의 기술<br>정경연 정경연한의원 원장                           | 15:40 <b>[종합강연]</b>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업경쟁력<br>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 12:00 점심식사  | 16:40 <b>[종합강평]</b>  |
| 13:00 <b>[감성충전]</b> 제주도의 시인, 하멜표류기 연구가의 시낭송과<br>떼배여행이야기<br>채바다 시인, 바다박물관 관장 | 16:55 <b>[폐회인사]</b>  |
| 06:00 <b>[참가자 친선골프]</b> 스카이힐CC  | 17:00 롯데호텔 - 제주공항 이동                                       |
| 14:30 <b>[금융특강]</b> 포스트 금융위기를 대비하자<br>금융기업 CEO 교섭중                          | 18:30 제주공항 - 김포공항 이동                                       |

8/1, 2(토,일) 개별 휴가 사용시 호텔과 항공예약을 할인된 금액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섭외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된 일정을 공지드립니다.





▶ 상주아카데미에서 특강중인 김병일 前 기획예산처 장관



# 현대인에게 필요한 선비정신

제104회 경북 상주시 '상주아카데미' 4월2일(목)

김병일 前 기획예산처 장관

2006년 8월 개강 이후 현재 매주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주아카데미'는 본원과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정보화·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주아카데미는 회를 거듭할수록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4월 2일 "현대인에게 필요한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104회 강연을 해주신 김병일 전 장관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상주를 떠난 지 53년이 되었다. 그동안 상주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 상주에 대한 생각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상주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른들의 가르침과 일가친척,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던 추억 때문이다. 특히 집안 어른들로부터 살아가는 도리를 배웠던 기억은 지금도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 그 시절 추억의 연장선으로 올라가면 '선비정신'이라는 값진 가치관과 연결된다.

##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현대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질적으로는 반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지만 지금은 2만불로 250배가 늘어났다. 당시 우리보다 두 배는 잘 살았던 필리핀이 지금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필리핀이 시속 10km로 달렸다면 우리는 시속 200km로 달려왔다.

개인들의 생활도 굶주렸던 보릿고개에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있다. 옷이 없어 헐벗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브랜드를 따진다. 걸어다녔던 길을 포장하고 자가용으로 달리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이 놀랍게 발전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 지지를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얘기도 마음놓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놀랄만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내가 정말 성공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하는 느낌은 잘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먼저, 성공의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권력이나 부, 명예를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현재 내가 느끼는 마음의 평화, 건강, 사랑, 즉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이 자유로워졌다고 행복한 것

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 가정과 사회 모두가 도덕적 결여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반추해 보자. 먼저 가족과의 관계이다.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대가족이라 북적북적했다. 어른이 계셨고, 어른의 가르침이 온당했기에 평온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서로 협조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형제간에 화목했고 효자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 살면서 이따금 부모들을 찾는다. 자녀의 안부전화가 뜸하면 먼저 전화하기도 눈치보이는 상황이다. 가난은 면했지만 어쩐지 허전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요즘 한국의 평균적인 가족관계이다.

두 번째는 이웃관계이다. 예전에는 동족부락이었기 때문에 나가면 모두가 일가친척이었고, 대대로 함께 살아온 이웃사촌들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중소도시도 예전 같지 않다. 도시는 아예 남남이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 예전에는 읍내를 나가도 대개 아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익명사회이다.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 어디서나 서로를 함부로 대한다. 그야말로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는 겁나는 세상이 되었다.

세 번째는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도층과 우리 구성원 사이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도층은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실세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성공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다. 특히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몇 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서 10점 만점 중 5점을 넘는 곳은 교육기관뿐이었다. 국회, 정당, 정부는 3점 대에 머물렀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서 길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4라고 한다. 이렇게 사회 지도층과 구성원간의 불신이 걱정스러운 지경까지 와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다. 지금은 보호를 받지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주역이며 미래이다. 때문에 청소년을 오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사람이나 하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도덕과 윤리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일수록 가르쳐 준대로 배운다. 얼마 전 부산에서 초등학교생들의 인성수준을 조사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강아지, 휴대폰, 게임기, TV, 만화책, 교과서라는 열 단어를 쓴 카드를 주고, 항해를 나갔는데 풍랑이 쳐서 위험한 항해를 막기 위해 필요없는 물건을 하나씩 버리라고 했다. 카드가 반쯤 남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없었다. 카드가 한 두장 남았을 때는 게임기와 휴대폰이 7:3의 비율로 나왔다. 귀여운 우리 자식, 손자들의 현주소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황금만능풍조이다. '부자면 성공한 인생이다'에 일본과 중국은 20%, 우리나라는 50%가 동조를 한다. 물론 돈이 중요

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옳으나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룬 이면에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 형성하지 못한 결과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는 그동안 성장과정이 너무 초고속이었나. 이로 인한 원인이 상당히 크다. 자동차 운전도 시속 200km로 달리면 운전자가 얼마 동안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지만 한 두 시간 달리다 보면 눈에 핏발이 서고 목이 뻣뻣해진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교통법규도 어기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가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사회로 비유하면 전통윤리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우리사회가 변하는 동안 '사람의 도리로서 사람답게 살라고' 알려주던 어른신들의 가르침이 사라졌다.

선진국은 개인의 자유를 100% 존중하고 경쟁을 보장해 주면서도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룰을 위반하는 것에 대단히 엄격하다.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처럼 지나간 것을 비하하면서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단하지도 않은 역사를 갖고 닳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향해 뭉치는 것이 선진국이다.

지도층은 솔선수범하고 구성원들은 그런 지도층을 존경한다. 우리처럼 상하간에 의심하고 냉소하고 질시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식, 도덕,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은 자기 나라 역사와 전통 속에서 생성된 고유한 국민정신이 있다. 그 국민정신을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다.

작년 봄 아프간전쟁에서 영국의 해리 왕자가 전투복을 입고 참전한 사진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로 인해 해리 왕자는 탈레반의 공격 목표가 되어 위험해졌을 뿐 아니라 영국병사 전체가 위험에 빠져 영국 정부는 해리 왕자를 귀국시켰다. 공항에 나타난 왕자는 자신을 영웅시하는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아프간 전쟁터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민들이 왕실이나 지도층을 어떻게 생각했을 지는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미국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를 무덤에 가져가지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자기 이름의 재단을 설립해 대부분 사회에 환원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고, 금융왕 워렌 버핏도 자기 재산의 80%를 빌 게이츠재단에 기부했다.

###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한 '선비정신'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선비정신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선비는 바로 100년 전까지 이 땅을 통치했던 조선왕조 지도자들의 정신이었던



다. 14세기말에 건국해 20세기 초까지 519년간 지속된 조선왕조는 당시 세계 최장수 정치체제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시기에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왕권, 군사력, 행정력이 약했다. 그러한 조선왕조가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바탕은 바로 선비정신이었다. 선비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 숭선수범했고,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 올곧은 처신에 백성들이 존경했다. 집안에는 집안의 어른이 마을에는 마을의 어른이 고을에는 고을의 어른이 나라에는 큰 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선비정신 중에도 버려야 할 것, 흉내내서는 안될 것이 있다. 하지만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본받아야 할 불변의 가치는 꼭 되살려야 한다. 첫 번째, 올바른 처신을 배워야 된다.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 앞에서 먼저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물려가는 요즘 세태에서 이 점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 평생 공부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이다. 선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지독스럽게 했다. 그 공부는 지식 공부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식 공부에 앞서서 인성교육이 우선이었다. 5~6살이 되면 자기 스스로 옷 입는 건 물론이고 청소하고 부모님의 이부자리까지도 챙겨드리는 훈련을 지체가 높은 집안일수록 더 시켰다. 그렇게 공부한 다음 후에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다.

세 번째,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조선이 모두 잘 살아야 된다는 대동사회 건설을 주장했다. 선비들은 대동사회 건설을 위해 영향력이 가장 센 임금을 공부시켰다. 임금은 하루 네 차례 선비들에게 과외를 받았다. 선비들은 때로 죽을 각오로 임금을 향한 직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선비들이 이끄는 공동체가 가장 어려운 시기는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임진왜란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병 때문이었다. 의병은 백성들이다. 하지만 백성들이 바로 전쟁에 나 온 것은 아니다. 의병장이 나서고 백성들이 따랐다. 의병장들은 당시 최고 가는 선비들이었다. 선비들은 평소 옳은 일만 하자고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항상 선비들의 말을 따랐다. 그러던 때 왜군이 몰려왔고 평소 백성들에게 심어준 그 지도력, 리더십이 위기상황에서 의병과 의병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선비들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신분 차별을 했고, 글 읽

는 것만 중시하고 농업, 상업, 공업을 천시했다. 옛것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친취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은 튼튼한 나라가 되지 못했고,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국권을 침탈 당하고 엄청난 굴욕을 겪었다.

선비정신에 단점이 있었듯이 영국의 신사도정신에도 단점은 있다. 자기들끼리는 신사도를 지키면서 엄청난 제국주의 식민지경역을 했다. 미국의 개척정신도 자신들 입장에서는 개척이지만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살육이었다.

### 인재양성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 추구해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신(修身)이다. 개인적인 욕심, 사심을 내려놓자. 그러면 행복해진다. 행복이란 욕망을 분모로 하고 성취를 분자로 한다.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은 작아지고 욕망이 작을수록 행복은 커진다. 결국 욕망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욕망이 떨어져 나간 빈자리는 인성,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

두 번째는 제가(齊家)의 실천이다.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인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지덕체(智德體)를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지(智)만 남았고 덕과 체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 번째는 남을 칭찬하자. 자기가 칭찬 받고 싶으면 남을 칭찬해야 된다. 우리는 서먹서먹하다가도 남 욕할 때는 굉장히 친해지는데, 버려야 될 문화이다. 남 욕하면 바로 그 욕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결국 여러 사람에게 욕을 하면 여러 사람에게 욕먹는 사람이 된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앞서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자"고 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원한 금언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한 예로서 인재를 키우는 데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상주는 결국 사람이다. 상주의 초중고 학생들이 큰 인물로 자라나려면 바로 지덕체를 겸비한 인물로 키워야 된다. 상주의 지식인들, 자원봉사자들, 시장님, 교육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을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주가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고 상주시민들이 물질적인 소득증대에만 행복해지지 않는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스스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김병일**

### 김병일 前 장관

1945년 생으로 서울대 사학과와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예산과 금융, 공공개혁 분야를 두루 섭렵한 경제관료로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 등 요직을 거쳐 04년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다. 퇴임 후 현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 인간의 욕망과 자기완성의 과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에덴동산의 주거인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거의 완벽하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부여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의 에덴은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이자 천국, 극락이었다.

하지만 간사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던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 행복이 비극으로 급전하고 만 것이다.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할만큼 소중한 부부관계는 책임을 전가하는 비인간적인 관계로 전락하면서 인간의 비극은 싹트기 시작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보다 큰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원시적 삶의 조건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삶으로 과욕, 과속하면서 전복돼버린다. 창조주는 인간을 우주만물 중 으뜸의 존재로 만들었지만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로 남게 만들었다. 그 대신 모자란 것을 끝없이 채워나가도록 '욕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칼을 잘 쓰면 맛의 창조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욕망'이라는 신의 선물도 잘 쓰면 인간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잘못 쓰면 인간을 멸망으로 전락시키는 비극의 도구가 된다. 인간은 욕망의 주권자임과 동시에 욕망의 노예이다.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천사와 같은 배역도 하고 있지만 배신자인 악마의 악역도 능수능란하게 해낸다. 최근 온 국민을 실망케 하는 전직 대통령의 금전 스캔들과 관련된 마스크의 보도를 접하면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슬픈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 곧 소환돼 진실의 전말이 밝혀지겠지만 욕망이 인간을 금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 돈, 명예, 쾌락, 유행은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현대인의 5대 우상이라고 한다. 권력, 돈, 명예, 쾌락, 유행은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가치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제공하는 가치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누리면 이 가치들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그 달콤함을 누리려는데 있다.

우리 인간이 지난 존엄한 가치에 비하면 이러한 것들이 주는 가치는 하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 보다 값진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신앙교양서가 전하는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다. 어느 세미나에서 지도자가 중요한 교훈을 알리고자 주둥이가 넓은 항

아리에 큰돌을 집어넣어 채웠다. 그리고는 청중들에게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느냐고 물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다 채워졌다고 답했다. 그 다음에는 항아리에 더 작은 조약돌을, 그 다음에는 모래를 채워 넣으면서 청중들에게 다 채워졌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대답으로 청중들의 흥을 돋구는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 지도자는 주전자에 담긴 물을 부어 항아리를 채웠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고 청중들에게 물었다. 열정적인 한 참석자가 "항아리는 아무리 가득 채운다고 해도 아직 더 들어갈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세미나 지도자는 "글쎄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빈 항아리에 모든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큰 것들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잠재력의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인간의 삶의 공간을 가득 채워 인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먼저 채워야 하고 하위적 가치들은 차츰차츰 채워나가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천국)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2-33) 보다 값진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 두면 사람이 지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는 자가 된다고 성서는 강조한다.

천국이란 인간의 값진 미래를 의미한다. 세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고 더욱 빛나게 될 가치는 인격의 완성, 자기자신의 완성에 있다. 충실하게 산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의 문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 불후의 예술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시간의 강한 힘에 밀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예술가가 만든 예술혼은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영원히 빛난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욕망의 지배자가 되자. 보다 값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보다 하위적 가치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 아래에 있는 하위적 가치도 시간이 되면 다 누리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하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자신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 부, 명예, 쾌락, 유행 등 우상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 **KKMM**



# 경제에 봄은 오는가

윤병철 한국FPSB, 한국FP협회 회장

어둡고 추운 터널 속에 갇혀있던 경제에 봄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주가는 저점에 비해 40%나 올랐고 부동산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잔뜩 움츠리고 있던 시중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급등하던 환율도 안정을 되찾는 등 금융시장엔 봄바람이 완연하다.

실물지표도 일부 호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고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수출 품목의 경우 중국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최대의 재앙이 닥칠 것을 걱정했던 점을 생각하면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경기 조기회복론이 들쭉거리며 피어나고 있다. “경기는 이미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거나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멤버 가운데도 이런 낙관론을 펴는 이가 적지 않다.

“경제에 봄이 온다”며 특히 들떠 있는 곳은 금융시장이다. 시장가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해서 선반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거울은 어디까지나 시장 참가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 현실과 괴리가 생길 때가 없지 않다. 예상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거울은 표정을 싹 바꾸게 된다. 때문에 금융시장이 봄을 외친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다. 특히 최근의 주가 반등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로 풀어놓은 돈의 힘에 의한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물 경제지표를 보면 봄이 온다는 근거는 아직 희박하다. 산업생산 투자 고용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상황이 악화되는 정도가 약화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설사 경기가 바닥 부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V자형 U자형 W자형 등 회복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끔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경기회복

은 투자와 소비 수요가 얼마나 강력하게 뒷받침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투자, 소비, 고용 등은 한겨울이다. 아직 깨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29년 9월 미국 증시가 붕괴된 다음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그 해 연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한 랠리를 보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진행되고 은행이 연쇄부실의 수렁에 빠지면서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이다. 세계 각국의 공조로 국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고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동유럽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보면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 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들은 45개 채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자산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선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을 들어 기업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상황에 현혹돼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훗날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이번의 세계경제 침체는 바닥을 찍더라도 회복을 이끄는 수요가 매우 약하다는 점에서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지표가 일부 호전 조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물경제의 침체, 고용사정의 악화, 가계 부채의 증가, 금융권의 부실화를 고려한다면 경기부양은 계속돼야 할 것이며, 기업구조조정 또한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과신하면 거품이 생기지만 신중하게 대처하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더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 고유가 시대엔 가스비 다이어트하는 대성 S라인 콘덴싱



나는 따뜻한 물 마음껏 쓰는 인어공주~

유례없는 고유가 시대! 온수쓰는 것도 부담되지요? 가스비 다이어트하는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바꿔보세요. S라인 설계로 새나가는 열까지 잡아주니까 가스비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난방도, 온수도 마음껏 쓰세요.



**최고 35% 가스비 Save!** 최고 열효율로 월평균 10만원이면 3만5천원을 아껴줍니다.  
**소음 없이 조용한 Sound!** 불꽃이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퍼버빅' 소음이 없습니다.  
**유럽이 인정한 Safety!** 유럽안전규격(CE) 인증을 획득한 56가지 장치로 안심입니다.  
**난방, 온수의 빠른 Speed!** 틀자마자 따뜻한 난방, 일정온도의 풍부한 온수를 누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교육비 부담되지요? 북리슨이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임직원들의 잠자고 있는 상상과 창조력을 깨워 성공을 꿈꾸게 하라!**



## 명강사 명강의 Live Audio CD

**미니서가 무료증정 이벤트**  
 (CD 60EA 1세트)

오디오북 1세트(60EA)를 주문하시는 고객님의  
 고급 진열장(8만원 상당)을 무료 증정합니다.

**왜! 오디오북인가?** 최고의 강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물론, 강의 비용 부담까지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 ▶ **명강사 명강의로 모든 임직원의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평소 읽기 힘든 책과 듣기 힘든 명강의를 쉽게 접함으로써 자기계발과 성공 마인드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 형성.
- ▶ **기존의 임직원 교육보다 비용대비 높은 교육효과!**  
 기존의 강사 초청 교육의 경우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교육 혜택 미비 및 지속성 결여. 저렴한 비용으로 명강사 명강의 청취 효과 및 매월 지속적인 교육 실현.
- ▶ **언제 어디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  
 오디오북을 통해 휴식 및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인 자기계발 문화 형성. 미니서가에 비치된 오디오북을 공유해 들음으로써 상호 발전적 결속력 향상.
- ▶ **정기구독으로 매월 새로운 강연으로의 초대!**  
 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라이브 강의를 매월 3편씩 받아보는 정기구독 운영. (정기구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

Live Audio CD

정가 360,000원 (CD 60개 1세트)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55437-01-002410 예금주: (주)북리슨  
 고급 진열장(8만원 상당)을 무료 증정 | 카드결제는 북리슨 홈페이지에서 주문시 가능합니다.

